

바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계획을 기록한 본문이다.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?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히려 재판에 넘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.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오셔서 “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라”고 말씀하신다(행23:11).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“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”고 하면서 바울과 모든 자들을 살리신다(행27:24). **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(절대 계획)을 생각하고 헌신하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.**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수준을 넘어선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.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다면 염려할 것도 없고, 내 계획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.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 주시고,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. **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시대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으로 보내셨고, 살게 하실까?**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?

1. 전도자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?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유다.
 -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로마라고 불리는 미국에 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한다.
 -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,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다(Nobody)
 - 1) 일단 미국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였다.
 - 그래서 미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교지이고, 여기서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.
 - 2) 문제는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가 집결되어 있다는 것이다.
 - ① 때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다(계18:2-3). 성경에 바벨론의 시작은 바벨탑의 저주가 있었던 창 11장이다.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제국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. 시대마다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고,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.
 - ②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가? 청교도의 신앙 아래서 세워져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“God bless America”를 외친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지고,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본다. 그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.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미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다.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진 것과 같다.
 - ③ 미국에서 이것 놓치고 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모든 것 잃어버린 듯처럼 되는 것이다.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이것이다. 가나안 살리는 자로 산 것이다.
2. 이 땅 미국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?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.
 - 이 땅에 깔린 영적인 문제가 뭔지,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왜 오직인지, 그리고 그 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뭔지를 실제로 누릴 수 있으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영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.
 - 1) 모든 문제 사건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라.
 - 사람들이 그냥 당하는 문제 같지만 그냥 문제 아니다. 단순한 육신 문제, 마음의 상처, 경제 문제인 것 같으나 영적인 문제가 같이 간다. 세가지 영적 문제에 대한 세가지 영적인 해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.
 - ① 세가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? 나도 모르게 당하는 원죄의 저주다. 태어날 때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고, 가문 배경, 성장 과정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. 이것을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다. 사단의 저주다.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을 만든다(요10:10). 그 결과로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. 지옥 저주다.
 - ② 그리스도가 세가지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가지 근본 저주를 해결한 것이다. 참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(롬8:1-2),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(요일3:8),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것이다(요14:6).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히 알고, 누리고, 선포하는 데, 그들의 인생의 저주가 끝나고, 불치병이 치유되고,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것이다(영적 레버리지 역할)
 - 2)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함께 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붙잡고,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라
 - ①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공격하는 것이다(엡6:11-12)
 - 그러나 사단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한 것이다. 사용하라.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다. 사단은 결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. 하루에 단 한번만이라도 깊은 기도 속에서 이 힘을 누려야 한다. 반드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(마12:28), 내 안에는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다.
 - ②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. 축복하는 것이다.
 -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릇(Vessel)이다. 우리를 살리는 자, 축복하는 자로 세운 것이다(벧전2:9).
 -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사건을 사용해서 미국 안에 237나라를 살릴 일을 하실 것이다.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옥에서, 풍랑 속에서 확인해 준 것이 이것이다.
 - 3)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, 후대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린다. 자동 전달되는 것이다(트랜스미션의 축복)
 - 언약을 전달하고, 축복을 전달하고, 성령의 능력, 영적인 힘을 전달해주는 것이다.
 - 그런 부모가 있는 자녀들, 그런 1세대가 있는 교회의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.
 - 모세 이전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요게벳이 있었고,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한 한나가 있었다.
3. 우리를 통해 일어난 램넛트들을 각 분야와 전 세계로 파송할 정도로 제자를 키워내야 한다(영적 아웃소싱)
 - 1)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세가지 씨앗을 키워내는 것이다(하나님의 절대 목표)
 - 영적 씨앗, 영성을 가진 램넛트들이다. 기능 씨앗, 세상 살리기 위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.
 - 문화 씨앗,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,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. 전도자의 삶이다.
 - 2) 내가 만나는 한 사람부터 살리기 위한 기도와 헌신을 하라(우리의 절대 헌신).
 -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헌신이다.
 - 그리고 모든 램넛트는 한 나라 살릴 미션을 잡으라.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다.
 - 3) 이들을 키워 각 분야로, 전 세계 237 나라로 보내는 것이다. 미국에 램넛트 대학교를 세운 이유다.
 - 램넛트 대학교의 다섯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(미래 목회자 양성, 전도하는 중직자 훈련, 영산업인을 훈련시켜 현장 사역자로 파송, 237나라의 현지 목회자 훈련, 237나라의 램넛트 훈련)

결론-우리가 미국에 살아야 할 이유, 하나님의 절대 계획, 절대 목표를 다시 잡으라. 우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. 우리는 여기서 237나라를 살릴 램넛트를 키우는 것이다.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복한다.